

징수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산란노계는 육계와는 달리 도계품의 가치가 워낙 낮아 자조금을 부담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화장의 경우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이라면 국내 산란 병아리 공급처인 6개의 부화장이 수납기관이 되어 효과적인 자조금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년간 초생추 시장이 3,000만수로 볼 때 수당 100원씩(가정) 부화장에서 자조금을 수납한다면 30억원 정도의 자조금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부화장이 수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이 결실을 이루길 기대해 본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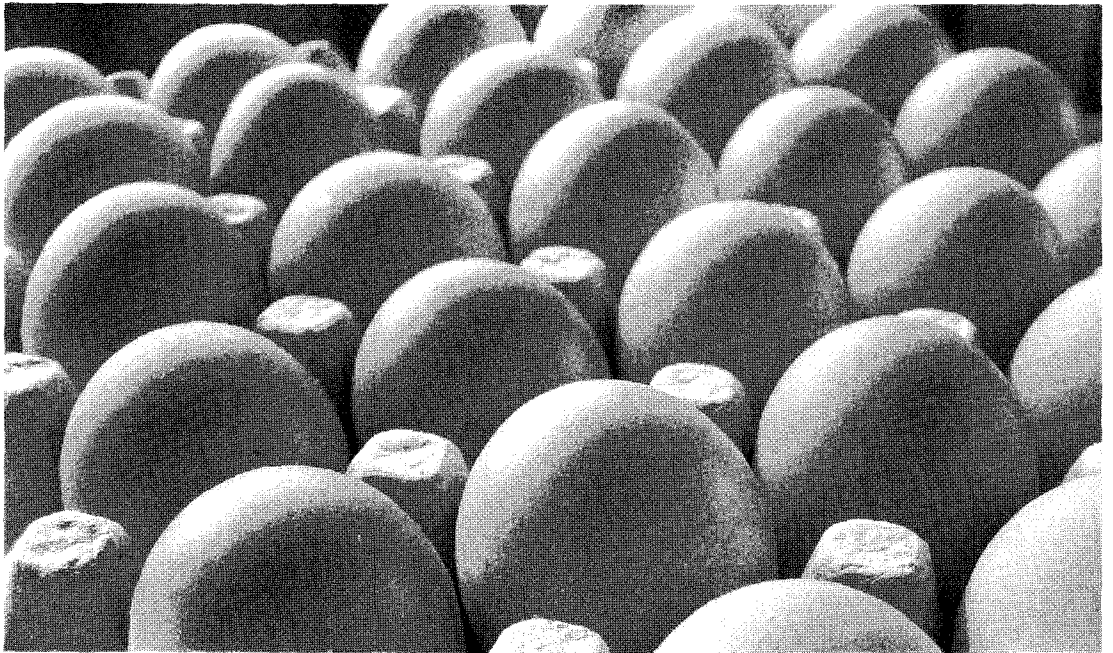
자발적인 자조금 조성에도 관심을

정 광 면 광명농장 대표/이천채란지부장

채란업계는 최근 과거에 보기 드문 초유의 난가가 형성되면서 호황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사료가격과 고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호황기에 십시일반 자조금을 거출하여 불황기에 활용한다면 더 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임의가 아닌 의무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자조금에 대한 추진 사항이 너무나 지지부진함을 느낀다. 타 축종(양돈, 낙농)은 이미 자조금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 이미 거출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채란분야는 준비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조금 거출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농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수월한 사료에서 거출해야 함을 제시해 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노계와 초생추에서의 거출 방안을 타협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 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앞으로의 불황을 대비해 우리 채란인들은 의무자조금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자조금(임의자조금)조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싶다. 양계협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각 도지회, 지부의 결속된 힘을 이용하여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사육수당 5원이나 10원정도의 자발적인 자조금을 거출하여 홍보 등 자조활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의 약 4천만수에서 10원씩만 거출하더라도 4억원을 모금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50%)을 받아 사업을 펼쳐나갈 경우 계란에 대한 우수성 홍보 등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계란우수성 홍보는 고난가로 농가에 수익을 가져오는 것 보다 훨씬 큰 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 채란농가들의 생존과 후손들의 안정적인 채란업 기반마련을 위해 자조금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해 본다. **양계**